

“돌봄·의료 재정립… 제도적 책임 강화해야”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 시민공청회

특별법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특례 답아

시·도 복지제도 차이 세밀한 조정 필요

광주시는 2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 분야 시민 공청회’를 개최, 광주전남 통합으로 광주가 시작한 통합돌봄 등을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영노 광주시의원, 김대삼 광주시사회서비스원장,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종합사회복지관협회, 노인·장애인복지시설단체, 의사회, 약사회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 추진 경과, 통합에 따른 정부 특전(인센티브),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특히 재정지원에 대해 “1+1은 2가 아니라 10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광

주전남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재정 지원으로 예상되는 20조+α는 27개 시·군·구가 단순히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며 “통합은 어느 한쪽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지기 위해 하는 것이다. 돌봄과 건강 또한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통합 이후 복지서비스 변화, 공공의료 강화 방안, 돌봄체계 개편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또 통합 과정에서 현행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과 현장 혼란 최소화가 중요하다는 점, 광주지역과 전남지역의 복지제도 차이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불이익 배제’ 원칙으로 복지서비스 저하를 방지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권·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유지·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통합이 지역 각 복지 수요와 기반 차이를 조화롭게 재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특례, 돌봄특구 지정, 공공의료 확충 등을 담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선택”이라며 “특별법 특례 조항을 통해 통합 이후 국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이양받아 돌봄과 의료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향후 행정통합 논의와 향후 정책 검토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복지·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추가 공청회와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1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4개 권역 성과 순환…‘신경제 구조’ 구축

민형배 “청사는 3~4곳 운영…전남광주특별시장 순회근무”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국회의원이 2일 서울을 뛰어넘는 ‘신성장특별시’로 성장하기 위한 권역별 구상안을 내놨다.

민 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시를 하나의 중심도시가 아닌 4개 권역이 분업하고 순환하는 신경제 구조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주장한 신경제 구조는 전남 광주특별시를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광주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역할을 통해 성과를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동부권(여수·순천·광안·고흥·구례)에는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 개발청’을 설치해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 유치와 우주항공, 수소, 반도체, 신소재, 첨단제조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안항을 중심으로 한 수출·에너지·산업 물류 허브 구축과 기존 중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미래 산업으로의 연착도 추진한다.

서부권(목포·영광·신안·무안·영암·해남·진도)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수도

이자 전남광주특별시가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관문 산업권으로 육성해 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가칭)’를 설립,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운송, 거래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에너지 전략 거점으로 키워나간다는 복안이다.

중부권(나주·강진·장흥·보성·완도)은 AI 기반 스마트 농어업과 농식품·바이오·치유 산업이 결합된 친환경 경제권으로 재편하며, 광주권(광주·담양·장성·함평·화순)에는 국가인공지능혁신진흥원과 AI 데이터청을 설치해 AI·문화·생활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근거로 실질자치정부 구현도 약속했다.

한편 민 의원은 통합자치단체 청사 문제와 관련해 “권역별로 총 3~4곳 청사를 운영하고 특별시장도 순환근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뒤 갈들을 일으키기보다 ‘분산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당 중앙위, 당원 ‘1인1표제’ 투표 돌입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

오늘 표결 결과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하는 ‘1인1표제’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표결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투표에 착수했다.

1인1표제는 현행 20대 1 미만인 대의원과 권리당원 17표 정도 가치를 가진다.

민주당 당헌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권에 20대 1까지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는 대의원의 1표가 권리당원의 17표 정도 가치를 가진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중앙위에 참석해 “1인1표제는 당원들 뜻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고 표를 사고파는 부정권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며 “1인1표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며 보완책도 제도화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안 표결에 앞서 전략(취약) 지역의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5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유동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 명을 우선 지명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대의원 권한 조정이 전라지역에서는 당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3일에도 투표를 이어져 표결 결과는 3일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엔 도입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의견 수렴 투표가 호응을 보였기 때문이다(참여율 31.64%, 찬성률이 85.3%).

다만 지난해 말과 같이 부결 사태가 펼쳐질 경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에서는 투표 참여율이 저조해 안건이 부결되며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엔 투표시간을 이틀에 걸쳐 보장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정다는 광주시의원 임명

정다는 광주시의원(사진)이 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정 의원은 제9대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다는 의원은 “중앙당 부대변인은 매일 발생하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입장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막중한 자리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당의 부름을 받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목소리에 더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지역 민심이 중앙당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민변 출신으로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선정됐고,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계엄저지, 탄핵인용),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선거대책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광주 지선 출마자들 출판기념회 ‘붓물’

“서구 K-문화 창의도시 성장”

김영남 민주 광주시장 상임부위원장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상임부위원장(사진)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단체장, 지역민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무대 중심의 집중 행사 형식에서 벗어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콘서트 관람과 저자 사인회, 기념촬영이 결합된 자율 참여형·체험 중심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책의 주요 내용을 관망하고 저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운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영남 상임부위원장의 출간한 ‘K-문화도시 광주 서구, 일자리가 답이다’는 서구의 구체적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라는 현실 진단에서부터 광주 서구를 세계적인 ‘K-문화 창의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AI 도농복합 스마트팜 조성, 통합복지까지 현실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정책 구상이 담겼다.



이산하 기자 goback@

“사람 중심 남구 건설 본격화”

성현출 민주평통 수석부회장

성현출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광주남구협의회 수석부회장(사진)이 최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저서 ‘남구, 누가 필요하니까’의 출판기념회를 갖고, 남구청장 출마를 향한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행사에는 박찬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민형배 국회의원, 이진태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등이 현장을 찾아 축하를 전했다.

출판기념회에서 성 수석부회장은 남구 미래전략연구소 소장으로서 그동안 연구해 온 남구의 핵심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아목을 집중시켰다.

남구 발전 방안으로는 역사문화자원을 산업화를 통한 ‘문화가 곧 경제가 되는 도시’, 단순 입시를 넘어 창의·인성이 꽃피는 ‘명품 교육 특구 완성’, 맞춤형 부부와 어르신들을 위한 ‘24시간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성현출 수석부회장은 “귀한 걸음을 해주시 1만여 주민과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시 뜨거운 성원과 명령을 가슴에 새겨 문화와 교육 경제가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 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주민과 미래 복구 준비 할 것”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사진)가 최근 광주교동문화연수원에서 저서 ‘달성합니다’의 출판기념회를 갖고 세 확산에 나섰다.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역민 등 각계각층에서 5000여명이 방문했다.

저서 ‘달성합니다’는 정 특보가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쌓아온 삶의 이야기와 정치, 철학,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비전과 주민 삶을 주점에 둔 실천 정치, 책임 행정에 대한 메시지가 담겼다. 출판기념회는 기존 정치 행사와 달리 젊은 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5개월 된 아이를 안고 참석한 신혼부부를 비롯해 청년 등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루며 지역의 미래 세대가 정치의 주인공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이 책은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걸은 시간의 기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며, 지역의 미래를 자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광산구, 통합의 핵심 거점”

박광식 민주당 광산을 수석부위원장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박광식 더불어민주당 광산을 지역위원장 수석부위원장(사진)이 최근 광주여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저서 ‘광산, 길은 있다’의 출판기념회를 갖고 광산구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지역민을 비롯해 정지권, 학계 등 4000여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의 신간 ‘광산, 길은 있다’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광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다루고 있다. 특히 광산 지역을 광주와 전남을 잇는 ‘관문’이자 ‘전초기지’로 분석하며 행정 통합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광식 더불어민주당 광산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 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광주 전남 통합 시대를 맞아 광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 제안서”라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응집되는 변화의 시기에 광산이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임정호 기자 ljh4415@